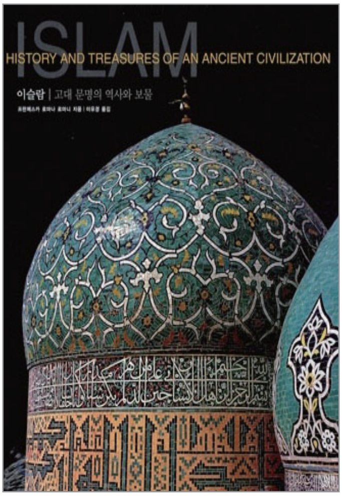

제목	이슬람: 고대 문명의 역사와 보물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생각의 나무
발행일	2008. 2. 20.
저자	Francesca Romana Romani 이유경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207
ISBN 또는 ISSN	978-8984987104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슬람 문명의 역사를 시대 순으로 기록함으로써 그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슬람의 요람이자 부족사회 구조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유산으로 남긴 베두인 사회를 필두로 끝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슬람의 역사와 예술을 고찰하고 있다.

이슬람은 신만이 영원하고, 다른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으며 덧없이 일시적이고 우연하다고 단언한다. 이슬람에서는 전능한 신의 창조적 행위 없이는 세상에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의 이러한 행동은 추상적이고 객관적이며 순간순간 세상을 재창조한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자연을 모방하는 예술은 없다. 모방할 수 없는 신의 작업을 모방하거나 흉내 내려는 시도는 불경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히 이슬람 예술은 추상적이고 암시적으로 발달했고, 장식적으로 표현되었다. 아라베스크는 그 중 가장 강력한 예다. 아라베스크는 양식화된 유기적 형태의 순수한 장식으로, 표면을 덮으면서 가벼운 느낌을 준다. 서예가 중요한 예술 형태로 부각되었으며, 서예에서 글자는 기호이자 무늬가 된다. 글자는 신의 언어를 구체화하고, 신비롭고 신성한 가치를 지니며, 이슬람의 반자연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실현한다. 이러한 글자는 코란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동화되고, 조각들로 변형되어 이슬람교도와 이슬람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을 자극한다. 이것은 건축물의 외관에서 볼 수 있는데, 주로 신과 신의 공동체의 위대함을 집단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